

‘군공항 소음법’ 보상까지 첩첩산중

광주시, 3개 구 10개 동 소음피해지역에 약 30만명 추산

영향·거주기간 등 차등 지급 예정...소음지수 제외 변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도 소송 없이 군 항공기가 유발하는 소음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유덕·서창·치평동, 남구 대촌동, 광산구 동곡·신흥·우산·도

산·송정1·송정2동 등 3개 구 10개 동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약 30만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군 소음법으로 피해지역 거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입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법률안에 소음피해의 측정방식이나 보상의 기준이 될 소음의 수준이 빠진 것도 변수다.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항 또는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발생 횟수,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소

음영향도’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신청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 온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민중당)은 “법률안 통과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공정한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측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뉴스’와 통화에서 “보상금 지급주체인 관이 주도해 소음피해를 측정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 지역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감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광주·대구·수원과 같은 대도시는 85웨클(WECPL·소리 크기의 단위인 데시벨(db)에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 등을 보정한 단위), 강릉·서산 등 소도시는 80웨클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강릉의 소음이나 광주 소음이나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법률안 만드는 과정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게 됐다”며 “형평성 맞는 기준이 정립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체험관 착공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오후 북구 오치동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최초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착공식에 참석해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장취국 광주시교육감,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김경진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 내빈들과 기념발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제2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 발표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각각 선정됐다.

단체장부문은 ▲신우철 완도군수(행정마케팅), ▲이승욱 강진군수(행정경영혁신),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관광콘텐츠조성공로)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정치부문 등 11개 부문에서 사회 각계 다수의 인사가 선정됐다.

한편, 2019년 제2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초등학교 3층 연회장에서 개최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 최고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김 지사는 민선7기 핵심 기조인 ‘도민 제일주의와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지원, 청년 구직활동 수단 신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701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 용 순(341218-2634827)
최 후 주 소 : 순천시 주암면 용지길 63
등특기준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용지길 47

위 망 이용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1월 4일

공 고 인 : 조맹용, 조중용, 조관용, 조신용, 조금옥, 조용수, 위급희, 조의리, 조윤호, 조근호.

주 소 : 광주시 초월읍 선장동길16번길 19-7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0월 24일
공고기간: 2019. 11. 4~ 2020. 1. 4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연말에는 노사분쟁 시정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도서민정원외·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결실무원외

동구, 쓰레기 줄이기 주민토론회 개최

광주 동구가 환경오염과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토론회를 11월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토론회는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한 2020년 쓰레기 없는 동구원년 선포에 앞서 권역별·분야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3시 자산2동 마을사랑채를 시작으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동구문화센터 등을 순회한다. 각 동별 자원단체회원, 청소활동가, 자원순환해설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증강

광주 서구는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들의 중풍예방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성공적으로 종강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중풍예방교실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65세 이상 서구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참여하기 힘든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관리법 강의, 저염식이 강의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겨울철 대비해 버스 승강장 온기 텐트 설치

광주 남구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길거리 보행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온기 텐트를 설치한다.

남구는 1일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겨울 한파 기간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곳곳에 온기 텐트를 설치, 오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 밀착형 행정 실현을 위해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은 17곳에 온기 텐트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입해 가로 3m, 높이 2m 크기의 온기 텐트를 새롭게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15일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북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 부문 우수상

광주 북구가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 사회혁신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혁신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49개 지자체가 참여해 ‘일반협업’ 부문 39건, ‘사회혁신’ 부문 42건 등 총 81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국민 온라인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종 5건이 선정됐다.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에서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복지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광산구는, 민선7기 광산형 복지정책의 근간을 마련할 예정이고, 다음달 정책제안서도 발표한다.

광산구는 6월부터 7개월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3,384세대를 대상으로 공직자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